

전북 서해 바람·햇빛 '에너지 대전환' 물꼬

새만금 수상태양광 단계 추진
고창·부안 해상풍력 24GW 조성
용담댐·금강하굿둑 용수 공급
RE100 산단·자원순환 산업 육성

〈完〉전북도가 지난달 타운홀미팅을 마중물 삼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해 에너지 대전환의 물꼬를 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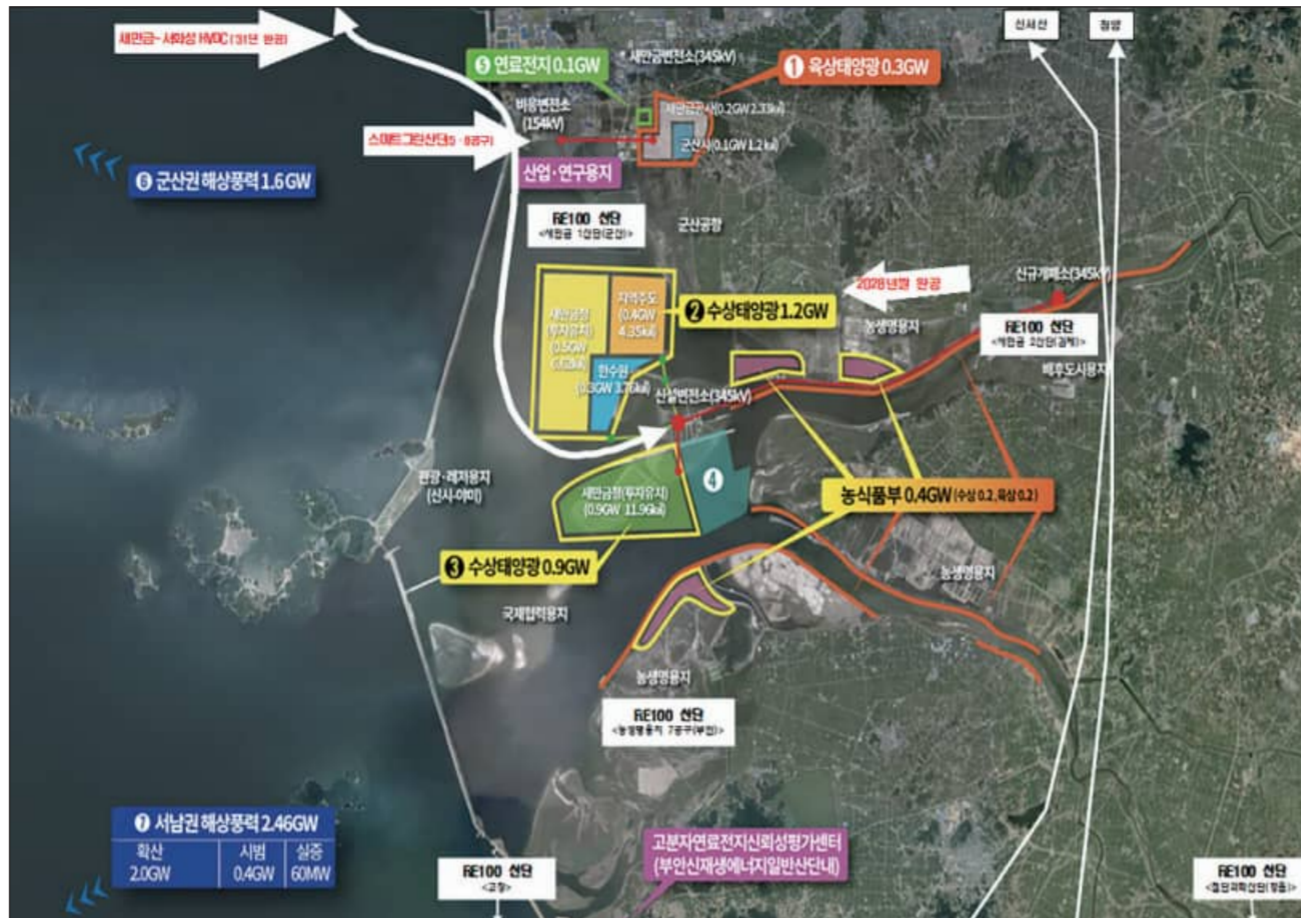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 산업용수 확보, 자원순환 산업 메카 육성까지 전북의 미래 전략이 국가 기후·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며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기대가 모아진다.

10일 도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27일 타운홀미팅을 통해 전북에 재생에너지 12GW 이상을 공급하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는 2029년까지, 2단계는 2030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과 부안 앞바다의 해상풍력도 실증단지 수준을 넘어 2.4MW를 본격 조성하고, 배후 지원항만도 함께 만들어 해상풍력 전진 도시 전복'을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새만금 수문 증설과 함께 조력발전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전북도는 수상태양광 접속선로를 기존 15km에서 2km로 단축해 2,000억~3,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고창·부안 해역에 총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군산항과 울 하반기 개장하는 새만금항 신항(2선석, 5만톤급)을 해상풍력 기지재 운송 거점으로 활용한다. 조력발전도 만경강·동진강 유역 2개소에 추진해 224MW 규모의 발전용량 확보와 수질 개선·홍수 예방 효과를 동시에 거둔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기업들이 전기요금과 물값을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북에 분산 특구를 조성하고 지역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용담댐에서 하루 30만 톤, 금강하굿둑에서 30만 톤을 더해 총 60만 톤의 용수를 전북 산업 발전을 위해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재생에너지 12GW 시대' 전북 에너지 전환 본격화
기후부는 지난달 27일 타운홀미팅을 통해 전북에 재생에너지 12GW를 공급하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단계별 추진 및 고창·부안 해상풍력 2.4MW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사진은 새만금 RE100 산단 수상태양광 조성 지도. <사진=전북자치도>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총분한 전력·용수·부지를 갖춘 새만금을 전국 최초 RE100 전용 산단으로 조성한다. 광주·구미·부산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서 공백 영역인 첨단 케미컬 소부장 분야를 전북이 채워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의 완결성을 높여준다는 전략도 내세운다는 복안이다.

특히 김 장관은 해외로 유출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국내에서 순환시켜 리튬·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고순도로 추출하고 태양광 패널 재사용과 폐플라스틱의 열분해유 전환 산업도 전북을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 재사용 분야에서 가장 큰 공장이 전북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대량 폐기될 패널들이 다시 순환할 사이클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생산-재활용-고부가가치화로 이어지는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고창 한전 전력시험센터는 규모를

키우고 시설을 개방해 전력 기술 기업의 집적지로 육성하고, 정읍 방사선연구소 산업화도 추진해 기반 시설을 전력 자산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새만금 대규모 수상태양광이 완성되면 주민 참여형 에너지 펀드를 만들어 전북 도민들이 일반 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특정 발전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전북 도민의 소득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설계하겠다는 것.

도는 햇빛소득마를 조성하고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 구조 확립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무엇보다도 도민 실질 소득 증대로 직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기후부의 에너지 전환 구상이 전북의 실행 계획과 본격적으로 맞물리게 됐다"며 "서해의 바람과

햇빛이 전기가 되고, 일자리와 소득이 되는 전북의 미래를 만드는 데 도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협약 뒤에 숨은 행정... 시민 세금은 누가 지키나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음식물 건조박 외부 반출 지속
시, 연간 2억 5천 처리비 부담
"민간 권한" 책임 회피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이 행정의 관리, 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건조박이 연간 수억 원의 처리비를 들여 외부 민간업체로 넘겨지고 있어 자원의 손실과 시장질서 교란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종합타운) 시설은 지난 2016년 태영건설, 에코비트위더,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 등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자투자(BTO) 방식으로 설치했다.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전주시에 귀속됐으며, 운영은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맡고 있다. 전주시는 '운영은 사업자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운영권을 위탁했다고 해서 감독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협약의 당사자는 전주시이며, 시설은 공공자산이다. 행정은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건조박은 월 약 700톤 규모로 추정된다. 전주시는 이를 사료가 아닌 중간 가공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으며, 톤당 약 3만 원, 연간 약 2억 5천만 원의 처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처리 단가 산정의 근거, 업체 선정 과정, 공개 경쟁 여부 등에 대해서는 '민간 계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자사업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앞세워 도입됐다. 하지만 효율은 투명성을 전제로 할 때 정당성을 얻는다. 협약은 민간의 수익 안정뿐 아니라 공공의 통제와 검증 권한을 담보하는 장치여야 한다. 처리 방식과 비용 구조가 사실상 민간 판단에만 맡겨져 있다면 제도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BTO 사업은 제안 단계에서 수치 분석과 계약이 완료된 사안으로, 이번 사안은 행정의 관리·감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운영은 민간이 맡더라도 책임은 공공에 있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라면 행정의 설명 책임 또한 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동희재부>

여야 12일 본회의 법안 처리...대미투자특별법 우선

민생·개혁 법안 60여건 처리 합의
예결위원장 진성준 선출키로
TK 행정통합법은 합의 불발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60여 건의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동 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60여 건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외한 민생·개혁 법안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병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 사직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선출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 결과에 따라 민주당 몫이며, 민주당은 진성준 의원을 추천했

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TK 통합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산너리에서 불어온 바람
나를 깨우고
하늘 품으로 흩어지는 꽃잎
마음을 간질이는 봄

가자, 우주로!
꽃내음 가득한
자연특별시 우주의 봄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자연특별시 대표관광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문의 1899-8687

전북도, '귀농귀촌인 2만 2천명' 유치 총력전

귀농창업·주택자금 207억 투입 서울·김제 '투트랙' 유치 채널 빈집 활용 '귀농인의 집' 확대 멘토링·교육 등 정착 환경 조성

전북도가 2026년 귀농귀촌인 2만 2,000명 유치를 목표로 홍보·주거·정착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해 상반기 귀농귀촌인의 소득 창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207억 원 규모의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투입한다.

이는 전국 지원 규모의 15.4%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귀농귀촌 단계별 21

개 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 3개 사업에 총 74억 원을 추가 편성해 전북만의 유치·정착 지원체계를 견고히 할 방침이다.

수도권·대도시와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선 투트랙(Two-track) 유치 전략을 구사한다. '전북 귀농귀촌 서울사무소'가 수도권 도시민을 겨냥한 집중 홍보를 맡고, 김제 소재 '전북 귀농귀촌 사무소'는 비수도권 및 인근 광역시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채널을 이원화한다.

귀농귀촌인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거 문제 해소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체제형 가족실업농장 12개소(140호), 귀농인의 집 70개소, 게스트하우스 8개소(24실)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임시 거주시설을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는 정읍 등 9개 시군에 농촌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13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무주와 임실에는 26호 규모의 '전북형 보금자리' 2개소도 준공해 초기 정착 단계의 주거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농촌 빈집 문제에는 38억 원을 들여 '빈집·유류시설 재활용 사업'으로 정면 돌파한다.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능성이 확인된 빈집은 리모델링과 거래 플랫폼 등록을 지원하고, 노후 빈집은 철거 후 공용주차장·마을 텃밭 등 공공시설로 전환한다. 농촌 유류시설 역시 창업·사회서비스 공간으로 재생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

상이다.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이끄는 현장 밀착형 지원도 확충한다. 멘토·멘티 프로그램, 실용 교육, 마을 환영회, 취·창업 연계 등 15개 지역융화 프로그램에 25억 원을 배정해 원주민과 이주민이 상생하는 정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현장 밀착형 지역융화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고 방치된 농촌 빈집을 새로운 지역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귀농귀촌인이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우원식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하자" 제안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요청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



우원식 의장

이어 "민주당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헌법헌법 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대해 주요 민주화운동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6.3지방선거일에 개헌 투표를 동시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하니, 오는 17일까지 (여야)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으니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 핵심 과제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 책임의 헌법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 우선 의제는 국가 개헌특위에서 정리하자"면서 "헌법전문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형 복지 안전망, 국가 정책 사각지대 품는다

정부보다 기준 완화 '촉촉한 돌봄' 통합돌봄 365 패키지 운영 지역 공공의료·필수의료 강화

전북도는 정부 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본격 나선다.

10일 도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촉촉한 돌봄체계를 구축, 도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고 무상보육·SOS 돌봄센터·통합돌봄 365 패키지 등 빈틈없는 돌봄 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주민돌봄지원센터 운영, 자활 인프라 확충 등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료 인력 지원, 소아·분만 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등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해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적용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도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 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고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확대해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아동·가족·노인·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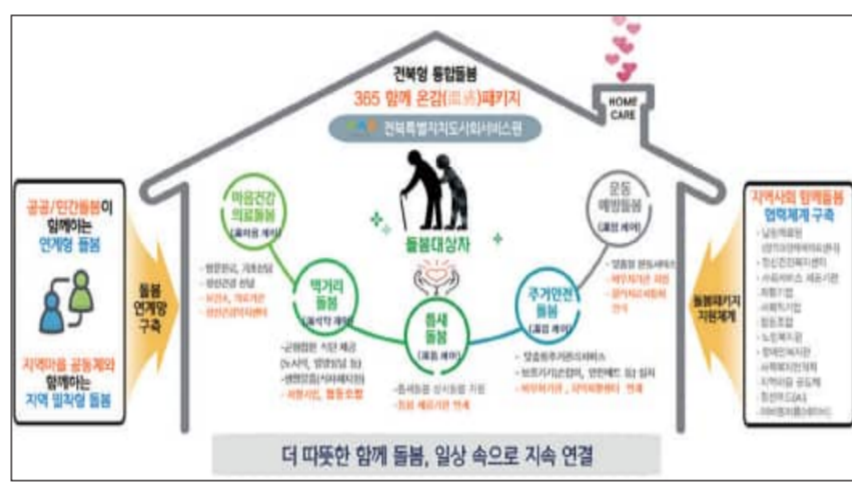
부모부터 차액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지원해 전북형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2026년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도입하는 한편 주말·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전북형 SOS 돌봄센터를 운영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있다.

의료취약지의 공백 해소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주·장수·임실·순창 보건

의료원 봉직의(4명)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에 대해 방상운 전북자치도 복지여담원의료원에는 공익적 손실비용 30억 원을 지원해 안정적 운영과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도내 수련병원(3개소) 전공의와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를 지원해 응급환자 대응력을 강화하고, 분만 취약지 임산부에게 분만이송비(70만원/인) 소아 진료 체계를 지원해 안전한 출산과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도>

전북자치도, 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전북도는 10일 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도는 오는 5월 15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어업인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어업경영체 기준으로 △1인 경영체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전북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

하며 실제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 등도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직전 연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부정수급 또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사 성격 공익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도 제한된다.

도는 8월 말까지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추석 전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한병도 "내란 아니라던 장동혁 입장 뭐냐"

"국힘 절운 결의문 반쪽 사과" 지적 "내용 모호 지방선거 미봉책 그쳐" "윤갑근 후보 제명하라" 촉구



한병도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계엄사과는 이번에도 반쪽짜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날)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의 정치적 복구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절운을 한다는 것인지, 윤여거인에 반대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이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없는 중 범죄자"라면서 "당연한 사실을 두고 결의문까지 발표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인지 의문이다. 지

방선거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또 "어제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윤석열으로부터 '나가서 싸워 이기라'는 응원을 받은 윤갑근 충북도지사 후보부터 당장 제명하길 바란다"며 "윤석열은 내란 수괴이다. 12.3계엄은 내란이라고 명확하게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총괄로 짓밟은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

다는 목소리를 내시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의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 원내대표는 "당정정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와 원자재값 변동 상황, 증시와 환

율 등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이나 사재기 등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해 주세요

-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텀블러, 스테인리스, 대나무 등의 재질 빨대·젓는 막대
- 편의점, 슈퍼 마켓: 비닐봉투 → 장바구니
- 백화점, 대형마트 등: 우산비닐, 우산 빗물 제거기

전주시 남성 육아휴직자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

전주시는 남성 육아휴직자에 한해 3개월 동안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한다. 시와 전주시가족센터는 지역사회 출산 장려 사업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 육아휴직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전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고용노동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한다. 단,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인 고용노동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발급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등의 서류를 갖춰 전주시 가족센터(덕진구 팔달로 336)로 방문하면 된다. 이와 신청 필요 서류는 전주시가족센터 누리집(jeonju.familynet.or.kr) 또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

고하면 된다. 전주시가족센터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을 맡고 있으며 △취약·위기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아이 돌봄 △공공육아나눔터 운영 등 가족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가축방역 '총력전' ... 전국 가축전염병 '심각'

고병원성 AI·구제역·ASF 방지 특별방역대책 3월까지 연장 양돈농가 ASF 일제검사 참여 독려

전국적인 가축전염병 '심각' 위기 단계 상황속에 전주시가 가축 질병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해 '2026년 춘계 가축방역사업'을 펼치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최근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

라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발맞춰 AI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관련해 △행정명령(13건) △방역 기준 공고(11건) 홍보 등 차단방역에 모든 가능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3월 한 달간 행정명령 및 정밀검사 체계를 강화해 가금 농장 외부인력 출입 관리 및 농장 내 차량 진입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양돈농가 대상으로는 매주 일제검사와

검사 미참여 시 과태료 부과 및 출하 제한 등 엄격한 행정처분 조치한다. 시는 방역대책상황실 비상 대응 유지와 24시간 가점소독시설 운영, 농가 방문 시 축종별 차단방역 교육 등을 병행함으로써 전염병 유입 경로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춘계 방역사업을 위해 총 1억5000여만원 예산을 투입해 축종별로 필요한 12종의 방역 약품소 5종, 돼지 3종, 닭 3종, 개 1종)과 접종 부자

용을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한다. 시는 우제류 소규모 농가와 염소 농가에는 공수의 2명과 포획단으로 구성된 전담 집중반도 파견해 현재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와 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조기 시행하고 있다. 또 시는 시민들을 위한 반려견 광견병 백신 접종도 오는 4월 중 전주지역 38개 지정 동물병원에서 실시한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농업인 소득 증대·복지향상 '집중'

3월 한 달 농업지원사업 집중 홍보 중점 접수 추진

전주시가 영농철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3월 한 달 동안 농가소득 향상과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각종 농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중점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각종 직불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면적직불금 136~215만원/ha, 소농직불금 130만원/농가)의 경우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전

락작물 직불제 중 논에 동계작물(밀·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은 오는 오는 4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하계작물(콩·가무살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농지소제지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민 공익수당' 신청도 함께 접수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1년 이상 주소와 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인 가구 6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것

이 핵심으로, 오는 5월 15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3월부터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시는 △농업생산 효율화를 위한 농업용 중소환경정 지원사업 △이양기,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과수방제기 및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여기에 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채상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농업인 안전보험'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해 농업인의 생산 안정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이들 3개 보험은 농협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80~9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자부담은 10~20% 정도이다. 이외에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여성농업인 문화복지를 위한 생생카드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영농철 친환경·저탄소 농업 육성 본격화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확대 병행

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친환경·저탄소 농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정부의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및 농업환경 보전 정책에 발맞춰 올해 총 7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농업 전환과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총 7억

5400만원을 투입해 9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및 유기농업 육성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단지 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시는 친환경 농법 전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부담을 완화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 지역 친환경 인증

은 401농가(227ha)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 시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통해 논물관리(중간 물때기, 논물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는 농업용수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토양개선 효과(산성화 방지 등) 등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올해 37ha에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유통·소비·확대를 위한 5개 사업에 65억원을 투입한다. /정소민 기자

시는 △인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 지원 △공공급식 농수산물 안전관리 지원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 증진과 농가의 소득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우 시장-메인비즈협회전북연합 지역경제활성 간담회 마련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판로 확대방안 논의

전주시는 10일 전주시장상에서 메인비즈협회 전북연합회와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지원 방안 등에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장과 노갑수 회장을 비롯한 메인비즈협회 전북연합회 회원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달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과 판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확대와 기업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

다. 시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K-컬처 미래인재 육성에 시동

지역자원 활용 체형교육 본격화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허대중)는 전주의 예술·전통·문화·환경·미래기술 자원을 적극 활용한 '지역연계교육 프로그램'과 'K-컬처 선도 글로벌인재양성 사업'을 본격 가동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부터 △팔복예술공장의 예술놀이 △전통 한지 교육인 '한지야 놀자' △학교로 찾아가는 연교교실 △새활

용 및 리사이클링 탐방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드론축구 체험 등 전주의 고유 자원을 반영한 총 7개 분야의 다양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해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현재 초등과 중등 학교 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며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 센터는 이동 차량과 체험비 지원을 포함한 '지역연계 문화예술 및 진로 체험

지원사업'도 병행,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현장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센터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인 'K-컬처 선도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UN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접목한 전주형 미래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현재까지 초등 대상 기후위기 인식 교육 400회차는 조기 마감됐으며, 현재 중

등 대상 'UN SDGs 인지 및 직업군 탐색' 프로그램이 선착순 모집 중이다. 중등 프로그램은 단순 이론을 넘어 실제 관련 기관과 단체를 연계해 실습과 체험 중심의 직업군 탐색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글로벌 감각과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그램 신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주교육포털(www.jj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청춘외락(樂)' 운영

청년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 오는 11월까지 단계적 회복 지원

전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2026 전수형 청년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인 '청춘외락(樂)'을 추진한다. 사업은 전주만의 특화된 '단계적 회복 모델' 구축으로 청년들이 정서적 소진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으로 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연간 총 9기에 걸쳐 기수별 10명씩 총 360여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기수별로 4주간(주 1회) 진행되며 '청년이음전주'(완산구 현무1길 31-5)를 거점으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월에 치유(3·6·9월)' 과정 △'아로마 치유(4·7·10월)' 과정 △'마이크라메 공예

치유(5·8·11월)' 과정 등으로 청년들의 정서 안정도모를 중점으로 운영된다. 특히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매월 3회차 과정에서 전문적인 '1:1 심층 상담'이 공동적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참여한 청년들이 인사이트 카드와 에센셜오일 시향, 타로카드 등을 활용해 현재의 심리 상태를 면밀하게 탐색하며, 내면의 욕구와 갈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자아를 재발견하고 성취감을 경험함으로써 지역사회 속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 희망 청년은 매월 20일부터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또는 전주청년온라인플랫폼 '청정지대'(youth.jeonju.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봄철 환절기 심혈관 질환 증가

큰 일교차·미세먼지, 혈압상승 혈전유발해 심혈관계 위협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전북지부) 3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봄철 번덕스러운 꽃샘추위와 함께 심혈관계를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024년 기준)에는 2월 318,596명이었던 심혈관 질환 환자 수는 기온 변화가 본격화되는 3월 328,922명으로 늘어났으며, 4월에는 341,723명에 달했다. 환절기 심혈관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기온 변동성에 있다. 의학적으로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은 약 1.3mmHg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작스러운 꽃샘추위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신경전달물질인 카테콜아민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는 즉각적인 혈압 상승을 유도하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치명적인 응급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봄철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더해지면 심혈관 건강은 더욱 취약한 상태에 노출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과 함께 혈전 생성을 가속화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저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심혈관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강한 통증이다. 하지만 고령자나 여성,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전혀 다른 양상의 비전형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환절기 심혈관 질환은 일상 속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혈관 내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해야 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자작자작 책 공작소' 8기 입주작가 모집

전주시는 오는 29일까지 완산도서관 '자작자작 책 공작소' 8기 입주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시는 모집을 통해 ▷전문작가 11명 ▷예비작가 10명 등 총 2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문작가의 경우 신춘문예 등 문학 매체 통한 등단자와 번역가, 기고자 또는 출간 경험이 있는 작가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단,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도서는 집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비작가는 정식 등단이나 출간 경험은 없지만 꾸준한 창작 활동을 준비하거나 작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선정된 입주작가에게는 완산도서관 3층 '자작자작 책 공작소' 내 집필 전용 공간이 무상 제공된다. 입주 기간은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3개월 또는 6개월 중 선택이 가능하다. 입주 작가는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월 15일 이상 집필실을 이용해야 하며, 매월 전주를 소재로 한 '글세'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전주도서관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도서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새만금 크루즈 산업 활성화 협력 방안 논의

새만금개발청-관계기관,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협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T(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크루즈 유치 기반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산 확보부터 시설 규모, 운영 방식(직영·위탁 등)까지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항만 운영계획과 정할 성, 보안·안보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크루즈 운항에 필수적인 CIQ(출입국·세관·검역) 기능 확보와 임시 크루즈터미널 내 검색·심사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및 필요 공간, 여객 동선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실제 입항 일정 기구체화될 경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새만금 크루즈 입항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갯벌 보전·복원 사업 본격 추진

고창·부안 갯벌 생태 보전·지속가능 이용 기반 구축 432억 투입

전북도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부안 갯벌의 생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 구축을 위해 총 432억 원 규모의 종합 보전·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해양보호구역 관리부터 식생 복원, 철새 서식지 조성, 세계유산 관리 거점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정책을 펼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갯벌 생태

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다.

연안 습지보호지역인 고창 갯벌과 부안 줄포만 일원 69.5km를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연 3억 원)을 시행 중이다. 지역관리위원회 운영과 명예습지생태안내인 활동,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갯벌 생태계 회복과 탄소흡수 기능 제고를 위한 식생복원 사업도 병행된다. 고창 갯벌에서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칠면조·나문재·통통마디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천수시설을 설치해 생태적 기능 회복에 나선다. 부안 줄포만에서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51억 원을 투입,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 및 함께 약 850m 규모의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계자연유산인 고창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도요물떼새 보금자리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해 인공습지와 탐조 시설을 갖추고 철새 서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강화할 방침이다.

갯벌 연구·교육·전시 기능을 통합한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170억 원을 투입해 연구실·교육실·전시시설을 갖춘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북 갯벌 보전 정책의 핵심 허브로 기능하게 된다.

특히 고창 두어마을은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로 선정됐다. 도는 8억 6,000만 원을 투입해 관광시설 개선과 주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생태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관리 모델도 구현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사진=북전주농협>

북전주농협, 조합원 칼슘유형비료 지원

영농비 절감 도움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조합원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칼슘유형비료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북전주농협 자체 보조사업으로 실시되며 총 364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13,405포의 칼슘유형비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83백만원 규모로, 이 가운데 60%인 약 50백만원을 북

전주농협이 자체 지원해 조합원들은 포당 6200원 상당의 칼슘유형비료를 농가부담 2480원에 구입할 수 있어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광 조합장은 “앞으로도 ‘조합원이 잘사는 농협 구현’이라는 경영철로 아래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곤충식품 기호도 예측 기술 개발

인공지능, 소비자 기호 파악 기간비용 단축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고려대(김규경 교수 연구팀)와 함께 식용곤충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곤충식품 소비자 수용도 점수 예측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

이 기술은 곤충식품 관련 데이터와 기존 관능 평가 결과 등에 피피로직을 적용해 1차로 소비자 수용도 점수를 산출한 뒤, 이 내용들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학습시켜 만든 것이다.

목표 기호도와 영양·가공 조건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 수용도 점수를 예측해 주기 때문에 시제품 수와 관

능 평가 횟수를 줄이고 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고소애(갈색겨지리 애벌레) 분말이 들어간 식품 4종을 제조해 20~30대(11명)와 65세 이상(11명) 총 22명을 대상으로 9점 척도 관능 평가를 시행했다.

이후 결과를 분석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적용했다.

그 결과, 고소애는 두부처럼 부드러운 제형보다는 국수나 쌀과자처럼 고운 처리해 고소애 특유의 풍미를 살린 탄수화물 기반 식품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기존의 관능 평가와 비교해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소비자 기호도



를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은 기술 고도화를 거쳐 다양한 식품의 시장 성공 가능성을 진단

하는 예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경진원, 2026년 ‘전북천년명가’ 참여업체 모집

30년 이상 사업 영위 소상공인가업승계자 대상

“오랜 역사와 전통을 축적해 온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전북과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통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전북천년명가’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도내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기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경영지원금, 홍보와 마케팅, 특허보증 지원 등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도내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며 기업 승계의 경우

에는 대표자의 직계가족으로 사업을 승계한 자가 해당된다.

2026년에는 총 6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북천년명가 기업 수는 총 6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선정 절차는 신청업체 업력, 매출액 등을 평가하는 서류평가와 더불어 현장 방문을 통해 사실 및 진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며 사업 아이템의 경쟁

력, 지속 성장 가능성, 전통성 등 발표평가를 거쳐 ‘전북천년명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참여업체에는 전통성과 우수성을 인정하는 ‘전북천년명가’ 브랜드 홍보와 인증 현판을 제공해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전북전기공사협회 제32회 이사회 개최

고등학생 장학사업 추진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최병인)·(재)전북전기공사협회(이사장 김종열)는 지난 6일 협회에서 장학회 이사, 감사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으며 장학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고등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종열 이사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더 많은 장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장학회 활성화와 젊은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재)전북전기공사협회장은 전기공사사업계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12년에 설립됐으며, 현재까지 총 343명의 학생들에게 5억1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명태 기자

전북도·전북TP ‘융복합 R&D 과제기획 지원사업’ 추진

기업부설 연구소 운영 지원...내달 7일까지 신청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10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업그레이드 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융복합 R&D 과제기획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 업그레이드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기자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와 장비 등을 지원하며,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활용되는 측정·시험장비, 시제품 제작설비, 개발전문 프로그램 등 운용

연구기자재가 지원 대상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융복합 R&D 과제기획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R&D 과제 기획보고서 작성과 기술 교류 등 제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접수 마감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R&D 과제 수행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백 원장은 “이번 사업은 R&D 과제 기획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4월 7일 오후 4시까지이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전북은행 ‘선물꾸러미 나눔’ 사업 전달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박춘원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10일 2026 ‘JB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사업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내 취약계층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해 나눔 문화 확산과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했다.

전북은행은 4000만원 상당의 선물꾸러미 1800상자를 도내 지자체를 통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날 전달식에는 박춘원 은행장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을 비롯해 노조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연구개발·기술보급 공동협약체 출범’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기술보급 공동협약체 출범식’을 10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상경 차장(위원장), 실·국장, 분과장 등 공동협약체 회원 36명이 참석해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 목표와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분과별 관리과제 세부 이행계획 보고와 연구 사업 공동 기획, 조기 보급 사업화 과제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동협약체는 식량, 원예, 축산, 스마트농업, 바이오푸드테크, 농업인안전, 치유·농촌, 병해충, 기후·환경 9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연구 성과가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실행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특히 연구 기획 단계부터 보급 부서가 함께 참여하고, 농업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급 사업화 검토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는 등 연구와 보급 협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개발 기술 보급 기간을 30% 단축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김상경 차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기후 위기와 농촌 노동력 부족 등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공동협약체 출범을 계기로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와 보급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연구와 기술 보급이라는 각 분야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농업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지은행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노미성) 임원 80여명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설명회’를 9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26 한여농 전북·도·시군 임원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또 농경경역의 핵심 주제로 성장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농지은행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리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공사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돕는 농지연금 △청년 및 전업농의 영농 규모화를 지원하는 농지 매매 및 임대차 사업 △경역 위기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등 주요 핵심 사업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여성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농지 이용 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소민 기자

중기청-전북국제협력진흥원, 유학생 취업 연계 맞손

중소기업 인턴십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기수)은 10일 ‘2026 전북 외국인유학생 취업연계형 중소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내 외국인유학생에게 기업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해 실무역량을 강화한다.

또 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취업과 지역정주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지원 △우수 중소기업 및 유능한 유학생 모집 △기관 지원사업 정보 공유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올해 인턴십 사업추진은 3월부터 10월 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통폐합학교 교육유물 이관 수집

5개교서 교육자료 196건 445점 이관 수집 전시·교육연구 활용

전북교육청은 올해 3월 1일자로 통폐합 학교에 남아 있는 교육유물을 조사·수집한 결과 총 5개교에서 교육자료 196건 445점을 이관 수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관 수집은 통폐합 과정에서 산재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는 교육유물을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발굴·수집해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유물을 이관한 학교는 군산 선유도중학교, 부안 상서초등학교, 남원 금지초등학교, 무주 부당초등학교, 무풍고등학교 등 5개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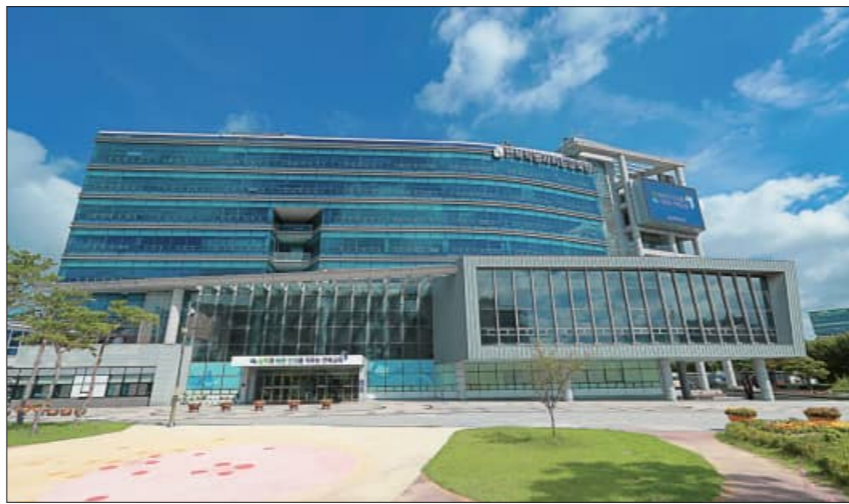
수집 대상은 학교비품·학습용구·학교

자료 등 학교 현장의 역사와 교육활동 변천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학교별 고유한 교육문화와 지역의 생활사를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표적인 수집 유물로는 일제강점기 문부성에서 편찬한 음악 교과용 '심상소학창가(尋常小學唱歌) 레코드판'과 60~70년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한 '등사기와 등사판', 50년대 사용한 '윤크라 지원 교과서' 등이 있다.

최근 교육 분야 기록관리 정책은 학교·기관에 분산된 기록을 전문기관 중심으로 정리·이관하고, 향후 교육·연구·전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통폐합학교 자료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지역사회와 학교의 관계, 시대별 교육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육사 자료다.



<사진=전북교육청>

학교가 사라지더라도 그 안에 담긴 기억과 기록은 보존돼야 하며, 이를 통해 전북교육의 발자취를 다음 세대와 공유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에 수집한 교육유물을 향후 분류·정리·목록화 과정을

거쳐 보존 가치를 검토하고, 전북교육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록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21일 신년음악회 개최

국악 장단 기반 공연 선배

국립전주박물관 신년음악회 '2026 새해가 차오름' 주제 문화공연의 막이 오른다.

공연에 앞서 국립전주박물관 박경도 관장은 '26년 붉은말의 해를 맞아 지역민들의 역동적 기운을 전하고자 기획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전주박물관 신년음악회는 3월 21일 오후 3시 박물관 강당에서 지역민 및 관람객들과 마주한다.

특히 이날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 팀의 국악 장단을 기반으로 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음악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공연을 통해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의 전통 민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곡들이 울린다.

주요 공연에는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와 민요 '한오백년' 매칭 곡 △영국 록밴드 퀸(Queen) 'We Will Rock You'와 판소리 '박티령' 결합 곡 등이 연주되며 새로운 '모던국악'의 진수가 펼쳐진다.

더불어 국립전주박물관은 지역민



<사진=국립전주박물관>

위한 액운을 씻고 복을 비는 '비나리'와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행행가' 프로그램을 통해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는 소통의 장을 이끌 전망이다.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지역민들의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해 박물관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온라인 예약', '현장 약'의 진수가 펼쳐진다.

더불어 국립전주박물관은 지역민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콜센터 상담역량 강화 설명회' 운영

오는 30일까지 행정능력 향상 도모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콜센터 신속한 민원 응대 위한 '전북교육콜센터 상담역

량 강화 설명회'가 진행된다.

전북교육콜센터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며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행정 업무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매월 1400여건의 상시 전화 상담을 통해 부서 전화 수신률 경감 및 직원 업무 집중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설명회는 전북교육콜센터에서 도교육청 각 부서로부터 접수한 업무 설명 요청 사항을 중심으로 오는 30일까지 운

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학생해외연수 추진 일정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교복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등이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관계조정지원단' 확대 운영

피해·가해 학생 밀착형 지원

전북교육청은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조정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에게 적용했던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중·고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한다.

관계조정지원단도 올해 94명으로 대

폭 확대했다.

'관계조정지원단'은 △상담전문가 △퇴직 교원 △경찰 △학교폭력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자를 토대로 도교육청 주관 조정 전문가 양성 연수를 이수한 사람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51건의 학교폭력 사안 등을 조정하며 127건(85%)을 합의 종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소민 기자

한국 바둑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창호, 체육소장품 기증

바둑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이창호 국수(9단)가 체육 소장품 기증에 동참했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한국 바둑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이창호 국수가 전북체육 역사박물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값진 소장품을 전달했다.

이창호 국수는 평소 자신이 대국 전 연습에 사용했던 바둑판과 바둑알, 선수단 단복, 손지압기 등을 기증했다.

전북체육회는 기증식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국수가 정중히 사양해 서울에서 소장품을 받아왔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소장품을 전달해 준 그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기증증서를 전달했다.

돌부처, 신산, 완성형 천재 등의 수식어가 붙는 이창호 국수는 전주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조훈현의 제자로 바둑계에 입문했다.

1989년 국내 최연소 타이틀을 획득

했고 1991년에는 세계 최연소로 세계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후 국내 16개 기전 사이클링 히트, 최다관왕 기록 등의 기록을 남겼고, 최단기간 내 9단에 오르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 통산 1969승을 기록해 스승 조훈현 국수가 보유하고 있던 1968승을 넘어서며 한국 바둑 역사상 최다승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스승 조훈현과의 승부를 배경으로 한 실화 바탕의 바둑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다.

이창호 국수는 "체육역사박물관 건립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바둑 국보 이창호 국수께서 소장품을 기증해 주실수록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체육역사 박물관 조성은 물론이고 전북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는 올림픽 메달 리스트를 비롯해 프로·실업



이창호 국수

<사진=전북체육회>

선수, 원로 체육인, 지도자(감독), 도민 등을 대상으로 체육 소장품 기증

릴레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장정철 기자

군산대 AI 실전 해커톤 'AIX-Boost 프로그램' 성료

국립군산대학교 '2025학년도 국립대 학육성사업 KSNU AIX-Boost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프로그램은 정부 AIX 정책 대응과 함께 비전공자 참여형 AI 활용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임교원 1명과 재학생 2~5명이 한팀으로 전공 지식과 AI 도구 결합 대학과 지역사회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습형 해커톤 방식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생활 개선, 행정 효율화, 지역 연계 콘텐츠 개발, 학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학습 지원 및 교과과정 개선 분야에서는 'AI 기반 대학 학생행정 맞춤형 안내 에이전트'와 'AI 기반 전공 튜터 및 학습 수준 분석을 통한 스터디 매칭 시스템' 등이 제안되며 미래형 교육 혁신 가능성을 보여줬다.

프로그램에서는 토목공학과 김인호 교수팀(김인호·황경록·박의찬)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7개 팀이 우수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소민 기자

사고 없는 봄 산행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켜주세요!

산행전 날씨
확인등, 필요한 정보확인

산행에 필요한 장비, 옷
식량등 준비물 철저히

금지위험구역
대신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

타박상, 굼힘등
사고대비, 구급약 준비

늦은시간
나 홀로 산행 자제

구조요청시,
국가지점번호 활용

군산시,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접수

군산시는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보리·밀·귀리 등 맥류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토양에 환원하거나 조사료, 축사 깔개 등으로 활용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금은 활용 방법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맥류 부산물을 잘게 잘라 토양에 환원할 경우 ha당 20만 원, 조사료나 축사 깔개 등으로 활용할 경우 ha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2,360ha 지원을 계획했으나 농가 참여 확대로 3,348ha 규모까지 사업을 확대해 추진했다. 올해는 2,435ha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영농부산물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삼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예방해 미세먼지 저감과 토양 지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폐적 농촌 환경 조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본격... '글로벌 인재 양성'

익산시가 지역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익산에 거주하는 초·중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어민 화상영어는 익산시가 지원하고 원광대학교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8년 시작해 올해로 9년째를 맞으며,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한 우수한 교육 품질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로 소통하며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 9일부터 맞춤형 영어 교육을 본격 시작했다.

화상영어 교육은 주 2회 진행되며 기초반은 1회 25분간 1:2 형태로, 심화반은 1회 50분 1:4 형태로 운영된다.

학습 성과 우수 학생에게는 3주간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원어민과 직접 소통하며 영어를 배우는 경험이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청년들 창업센터 '디지털 커머스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군산시 청년들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에서 군산 지역 (예비)창업가의 국내·외 디지털 커머스 시장 진입과 초기 매출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디지털 커머스 실전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단기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12주간 진행되는 실전 컨설팅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론·실습·판매·매출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 구조를 통해 참여자가 실제 매출 창출까지 이어지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이다.

교육 과정은 기본반과 고도화반 두 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기본반은 신규 참여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디지털 커머스 시장 진입을 위한 이론 교육과 AI 활용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1:1 후속 멘토링과 배송비 및 판매 물품 일부 지원을 통해 초기 판로 개척과 매출 창출을 지원한다.

고도화반은 2024~2025년 군산시 청년들 창업센터 이커머스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마케팅 전략 고도화와 매출 확장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예비)창업가가 디지털 커머스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사회적 약자 보호 나선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본격 운영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시는 확보된 국비 등을 포함해 총 13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사회적 고립 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20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정읍우체국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우체국 집배원이 매월 한 차례씩 대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생활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배원이 현장에서 파악한 가구별 근황과 위기 징후 등의 정보는 즉시 시로 전달된다.

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해 선제적으로 위기 상황을 대응하는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결혼이민자 고향 나들이 지원

정읍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고향을 찾지 못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올해 총 4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모국 방문 비용을 지원한다.

'고향 나들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에게 고향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정이며, 선정된 가구에는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료, 공항 왕복 교통비 등 실질적인 방문 경비가 지급된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40가정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5일 다문화정책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상반기 대상자 21가구 선정을 완료했다.

시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7세대, 1019명의 다문화가정 구성원에게 뜻깊은 고향 나들이를 지원해 왔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고향 나들이 지원이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따뜻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지역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경찰과 시민 안전망 '강화'

스마트빌리지 조성 업무협약 추진

익산시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익산경찰서와 손을 맞잡았다.

익산시와 익산경찰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경찰 간 협력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건·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돼 △우범지역 중심의 첨단 안전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은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인물과 차량 등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배회, 침입, 폭력, 넘어짐 등 이상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 즉시 표출해 사건·사고에 대



10일 체결된 익산시-익산경찰서,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업무협약식 <사진=익산시>

한 조기 대응을 지원한다. '익산안심이업'은 야간 보행 불안 해소와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한 서비스로, 귀가 경로를 미리 설정하면 위급 시 보호자와 CCTV 통합관제센터로 위치 정보가 자동 전송된다.

'스마트모빌리티 안전서비스'는 농기계 및 전동보장구 전복사고 발생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해 신속 대응을 돕는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행정과 경찰의 협력이 강화되면 범죄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 개선

6400만원 투입해 총 8개소 시설 개보수

정읍시가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개보수가 시급한 민간 어린이집 4개소와 가정 어린이집 4개소 등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총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모든 공사와 장비 구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현장의 수요가 높은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집중된다. 바닥재와 도배지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아이들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넓은 냉난방기와 제습기, 보일러 등 필수 시설을 정비한다.

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

했던 민간 보육 현장에 직접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저출산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덜고 시설 간 격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쟁력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 나서

9월까지 전수조사 통한 자진철거·원상회복 추진

군산시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과 홍수기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나선다.

시는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홍수기 전 하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추진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TF팀은 하천 담당 부서와 읍면동 직원으로 편성되며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저지물 방치 △무단 경작 △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자진 철거와 자진 원상회복을 우선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도심서 펼쳐지는 서동·선화 이야기

오는 5월 1~3일 개최

'익산 서동축제'가 올해 도심으로 축제장을 옮겨 체류형 역사문화축제로 새롭게 도약한다.

익산시는 서동축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신흥근린공원·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서동축제는 백제 무왕(서동)과 선화공주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익산의 대표 역사문화축제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해 백제왕도 유산과 연계한 다양한 역사 콘텐츠를 선보여 왔다.

시는 올해 축제 장소를 신흥근린공원·중앙체육공원으로 이전해 접근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또 도심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해 축제 효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제장은 △서동 스토리 △백제 체험 △야간 경관·미디어 등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돼 공연과 체험이 진행된다. 낮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미디어 연출과 공연을 결합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축제의 상징 프로그램인 '서동·선화 서사 퍼레이드'는 도심 환경에 맞춰 구간별 연출과 시민 참여 요소를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서동과 선화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되는 참여형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서동축제' <사진=익산시>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 주요 사업장 방문

내홍동 해안가 현장 점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9일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내홍동 해안가 산책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관계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설치 예정 구간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분석 여부 △우범지역 선정 기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야간 이용 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사업 선정 단계에서 주민 및 시의회의와의 충분한 협의가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CCTV 설치 위치는 범죄 예방 효과와 예산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선정돼야 하며, 해안가 경관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고, 예산의 합리적·효율적 집행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익산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오는 5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양봉업 종사자를 포함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경작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수산분야 계절근로자 164명 모집

군산시가 김 생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어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수산업 분야에서 근무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2월까지 해조류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71개 어가의 참여 희망 의사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164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결혼이주자의 2촌 이내 가족이며, 증가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군산시로 한정했던 결혼이주자의 거주 범위를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확대했다.

군산시는 2021년 전국 최초 해조류 양식분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

첫해인 2022년도 고용주 10명, 계절근로자 23명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며 지난해는 고용주 57명, 근로자 122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73명은 재입국자(어촌숙련인력)로 김양식 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맞춰 시는 기존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수수료 등 행정경비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는 임금체불보증보험과 상해보험 의무 가입을 시행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상호 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통·번역 전담인력을 채용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소통을 강화하고, 근로자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인력수급 기반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시, 우분 고체연료화 추진

총사업비 409억 투입 2028년 완공 목표 새만금수질 개선 기대

김제시가 축산업의 고질적 난제인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와 전주김제완주축협이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가축분뇨(우분)를 연료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형 축산 모델로,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과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분연료화 조감도 <사진=김제시>

김제 지역은 전북을 대표하는 축산업 밀집 지역으로 매년 약 83만 톤 이상의 가축분뇨가 발생한다. 이 가운데 소 사육두수 약 45,415두로 약 22만 톤/년, 돼지 약 263,268두에서 약 45만 톤/년 수준의 분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축산업의 고질적인 난제로 꼽혀온 가축분뇨는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원인일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가축분뇨를 단순한 '처리 대상'에서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수거된 우분은 김제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어 전처리와 수분 조절을 거친 뒤, 고속 발효 공정을 통해 건조·가공된다. 최종적으로 생산된 펠릿 형태의 고체연료는 발전소나 산업용 보일러 등에서 석탄을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와 전주김제완주축협은 김제시 백영 부담을 기증 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가축분뇨를 단순한 '처리 대상'에서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수거된 우분은 김제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어 전처리와 수분 조절을 거친 뒤, 고속 발효 공정을 통해 건조·가공된다. 최종적으로 생산된 펠릿 형태의 고체연료는 발전소나 산업용 보일러 등에서 석탄을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와 전주김제완주축협은 김제시 백영 부담을 기증 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가축분뇨를 단순한 '처리 대상'에서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김제 지역은 전북을 대표하는 축산업 밀집 지역으로 매년 약 83만 톤 이상의 가축분뇨가 발생한다. 이 가운데 소 사육두수 약 45,415두로 약 22만 톤/년, 돼지 약 263,268두에서 약 45만 톤/년 수준의 분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축산업의 고질적인 난제로 꼽혀온 가축분뇨는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원인일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가축분뇨를 단순한 '처리 대상'에서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부안군,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일자리·교육 등 5개 분야 중심 종합 지원

부안군은 지난 9일 부안군 청년정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부안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위원회는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부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2026년도 추진 방향과 세

부 실행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12개 관련 부서에서 총 117억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군청 회의실을 벗어나 청년 위원이 운영하는 스마트 팜 현장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현장 중심의 정책 논의를 통해 청년정책 수요자의 생생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 제고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2026년 시행계획은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참여·관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정착형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청년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연희 지역경제과장은 "청년정책은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과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야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본격화

보건지소·진료소 중심 주민 친화적 기능 강화

고창군보건소가 관내 14개 읍·면의 보건지소·진료소 총 36개소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지소·진료소가 주도적으로 맞춤형 건강교실을 연중 운영해 주민 친화

적 보건기관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의 단기·일회성 건강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지소·진료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밀착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각 기관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걷기, 영양, 금연, 만성질환 관리, 낙상 예방 등 체험·실천형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독거 노인,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해피콜 서비스'를 운영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국가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추적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단순 진료 기능을 넘어 주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건강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개최

읍·면 현안 점검 조례안 심의·의결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0일 제 37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읍·면 현안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형대 의원이 '인도 없는 삼남중학교 인근 용계길, 보행자 안전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해당 구간이 인도 없이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구조로 학생과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보도 설치와 속도 저감시설 확충,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보행자 안전 중심의 도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용 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신규 대원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읍·면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부안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개최 <사진=부안군>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0일 제 37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읍·면 현안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형대 의원이 '인도 없는 삼남중학교 인근 용계길, 보행자 안전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해당 구간이 인도 없이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구조로 학생과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보도 설치와 속도 저감시설 확충,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보행자 안전 중심의 도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용 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신규 대원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읍·면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황윤석도서관, 그림책 특별전 개최

내달 30일까지 전시

고창황윤석도서관에서는 그림책 작품을 통해 계절의 풍경과 감정을 만나볼 수 있는 봄맞이 그림책 특별전시 '그림책, 사계절 속을 걷다'를 운영한다. 그림책 속 계절의 풍경과 이야기를 전시 공간에 구현해 관람객이 책장을 넘기듯 사계절의 장면을 따라 걸어보는 체험형 전시로 운영된다. 내달 30일까지 고창황윤석도서관 마주침공간(지하1층)에서 진행되며,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봄부터 겨울까지 이어지는 그림책의 이야기와 감정을 공간 동선에 담아 그림책을 '읽는 것'을 넘어 '경험하는 전시'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출판사 위즈덤하우스와 협력하여 봄은 멜리 작가의 '짜짜짜 마을 딸기 축제', 여름은 신순재·이

영재 작가의 '가장자리', 가을은 서영 작가의 '다람쥐 할머니의 시간', 겨울은 원혜영 작가의 '나 여가 있어'를 중심으로 사계절의 감성과 이야기를 전한다. 전시장에는 작품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한 전시 패널과 계절 분위기를 살린 공간을 연출하고 대형 현수막과 캐릭터 등신대를 활용한 포토존도 함께 조성됐다. 특히, 오는 21일에는 봄을 표현한 특별전시 그림책 '짜짜짜 마을 딸기 축제'의 멜리 작가와의 만남도 마련하여 그림책 제작 과정과 작품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린이 대상 입체 카드 만들기 체험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고미숙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그림책은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매체"라며 "이번 전시가 지역 주민들이 그림책 속 사계절의 감성을 느끼며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청소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강화

심리·정서적 안정 도모

작년 5월 신곡 '진달래꽃 피었습니다'를 발표하고 2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했다. 정인은 2023년 리쌍 1집 'Rush'의 객원보컬로 데뷔, 독보적인 음색과 탁월한 감정 표현을 갖춘 보컬리스트로 '나는 가수다2', '불후의 명곡', OST 등을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왔다. 고미숙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고창문화의전당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준비해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심리·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에 힘쓴다. 작년 5월 신곡 '진달래꽃 피었습니다'를 발표하고 2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했다. 정인은 2023년 리쌍 1집 'Rush'의 객원보컬로 데뷔, 독보적인 음색과 탁월한 감정 표현을 갖춘 보컬리스트로 '나는 가수다2', '불후의 명곡', OST 등을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왔다. 고미숙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고창문화의전당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준비해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간담회

파종기 농작물 피해 예방

부안군은 파종기 농작물 피해 예방과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기동포획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파종기를 앞두고 증가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기동포획단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권익현 부안군수가 직접 참석해 기동포획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한 포획활동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획 활동 시

생활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등 안전의 무교육이 함께 실시됐다. 특히 총기를 사용하는 포획 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수칙 준수와 현장 대응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기동포획단 운영 방향과 함께 포획 활동 시 유의사항, 포획 실적 관리 등 포획단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부안군은 매년 몇몇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동포획단을 운영해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작물 피해가 집중되는 시기에 집중적인 포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부안=온봉기 기자

농촌지도자고창군연합회 한마음대회 '성료'

한국농촌지도자고창군연합회(회장 김춘옥)가 주최·주관한 '2026년 한국농촌지도자고창군연합회 한마음대회'가 10일 고창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행사는 고창군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고창군연합회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과 2부 화합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농촌지도자회 발전과 조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역대 1대·6대 황귀선 전 회장(상하면)과 군연합회 김상현 재무(아산면)가 중앙 및 도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고창 농업 발전과 군정 협력에 앞장선 읍·면 우수회원 14명이 군수 표창을 받으며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고창=백종규 기자

특히 2022년부터 자매결연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회장 이석근) 임원단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양 단체는 농특산물 상호교환식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상생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혔다. 2부 화합행사에서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회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촌지도자회가 지역 농업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참가자 350명 모집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026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회 건강체험마당과 연계해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김제시 실내체육관 일원 및 수변공원 산책로에서 개최된다.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는 어르신, 성인, 아동이 함께 걷는 활동을 통해 기억건강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세대 간 교류와 공감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을 지키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행사 참가자는 치매환자와 가족, 아동 등 김제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350명을 모집한다. 걷기 코스는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출발해 꽃빛드리 축제 행사장을 거쳐 수변공원 산책로를 걷는 약 1.8km코스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선착순 280명 사전 접수로 진행되며 김제시 SNS 공지 및 누리집 포스터 QR코드 또는 전화(063-540-2745)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접수 후 잔여 인원에 한해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기억을 지키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읍·면간 협력체계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성료

고창군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역량강화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실질적인 자치역량을 높이고 읍·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합동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권역구분은 1권역(고창읍·고수면·성송면·대산면), 2권역(아산면·무장면·공음면), 3권역(상하면·해리면·심원면), 4권역(흥덕면·성내면·신림면·부안면)으로 나눠진행됐다. 교육에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허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협력회장이 강사로 나서 '주민자치 사업 개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한 최근 현안을 공유하고, 전국 각지의 주민자치 운영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주요 흐름과 정책 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등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향후 역할과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이번 역량강화 교육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동진면,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환사업... 자원 재활용 활성화

부안군 동진면(면장 최정에는)은 자원 재활용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환사업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내 신농경로당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사무소에서만 교환이 가능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방문이 어렵고 소량의 물품을 가지고 면사무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엔 처음으로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신농마을 경로당에서는 주민들이 모아둔 폐건전지 8kg와 우유팩 5kg를 새건전지 및 화장지로 교환했으며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최정에는 동진면장은 "자원순환 교환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직접 마을을 방문하는 출장 수거를 통해 주민 참여 편의를 높이고 수거율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방식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남원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2곳 공모 선정

3대1 경쟁률 뚫고 쾌거 2억 확보 청년 유입 모색·정착 기반 조성 로컬 콘텐츠·예술마을 추진

남원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최종 2곳이 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서류와 현장 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전북 도내 총 16개 접수팀 중 최종 5개 단체가 선정됐다. 남원시는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2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단체인 '즐거움기획자들'과

'52헤르츠고래들'은 각각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특화 문화·예술 및 로컬 콘텐츠를 개발해 외부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인월면 중군성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즐거움기획자들'은 청년 체류 및 창작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청년 캠프, 음악 창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청년 예술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와 콘텐츠를 발굴해 청년 예술 활동의 거점 공간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선정 단체인 '52헤르츠고래들'은 남원의 청년들이 직접 지역을 탐색하고 기록하며 이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참여형 로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로컬 콘텐츠 개발을 통해 경험 기반의 소비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며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인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탐색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지역 활력요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2026 집중안전점검 가동...사전 설명회

주민신청 포함 83곳 민간 합동점검 모바일 앱 활용 현장 등록 운영

순창군은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영상회의실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공유하고, 민간전문가와의 합동 점검 체계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실시간 결과 등록 방식 등 효율적인 점검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61일) 동안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총 83개소로 △공장 및 공동주택 △숙박시설 △요양시설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취약 시설이 포함됐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안전 점검을 요



<사진=순창군>

청한 '주민신청' 시설 12개소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군민 체감형 안전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시설별 담당 공무원 30명과 함께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4명을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첨단 장비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

운 위험 요소까지 정밀하게 진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집중안전점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점검표와 현장 사진을 즉시 등록해 점검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적 사항이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로 사후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회 "비법정 도로 특별법 제정" 촉구

공공도로 편입·보상체계 요구 전국 실태조사 필요성 제기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식)는 10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정 도로 양산화 및 공공도로 편입·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법정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비법정 도로는 주민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중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비법정 도로는 주민들의 일상에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토지 소유권이 사유지로 남아 있어,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는 구조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토지사용료 청구, 원상회복 요구, 매수 및 교환 요청 등 소



<사진=완주군의회>

유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행정과 주민 모두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행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 개별 법률만으로는 복잡한 소유권 문제와 보상 절차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법정 도로를 공공도로로 편입하는 데 드는 막대한 매수 및 보상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비에 의존하다 보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비법정 도로 정비 및 공공 편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편입 근거 마련 △전문기관의 지적·공간정보를 활용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 및 관리 표준모델 구축 △도시재생 등 국가공모사업과 연계한 비법정 도로 정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완주=김명곤기자

춘향제 대동길놀이 카니발 전국 경연대회 도입

8인 이상 공연팀 참가 5월 2~5일 거리 퍼레이드

남원시가 제96회 춘향제의 백미인 대동길놀이 '춘향카니발'에 참여할 전국 단위 경연대회 참가팀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춘향제 대동길놀이는 고전소설 '춘향전'의 서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다. 남원 시내 한복판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춘향제의 대표적인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라는 슬로건 아래, 춘향의 멋을 '기쁨', '결기', '사랑', '전통' 등 4가지 테마로 나누어 날짜별로 다채로운 퍼레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전국 단위 전문 경연대회 형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축제의 예술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역동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무용, 댄스, 국악, 연극, 퍼포먼스 등 장르 제한 없이 8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하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남원시청 누리집이나 춘향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춘향카니발'은 오는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남원시 23개 읍면동 주민과 해외 공연단, 춘향이 페스티벌 등 다양한 팀이 참여해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퍼레이드는 남원용성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쌍고동 성당과 '차 없는 거리'를 거쳐 메인 무대까지 이어지는 약 2km 구간에서 펼쳐진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청 역도팀, 전국대회서 '선전' 기량 입증

황수민 95kg급 은메달 획득 장서진 75kg급 동메달 3개

순창군청 역도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순창군 체육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였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경상남도 고성군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2026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및 제23회 전국 춘계학 생역도선수권대회'에서 순창군청 역도팀 선수들이 잇따라 메달을 획득하며 값진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올해 새롭게 팀에 합류한 황수민 선수는 95kg급 경기에서 17명의 선수가 출전한 치열한 경쟁 속에 인상 157kg을

들어 올리며 2위를 기록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용상 182kg, 합계 339kg을 기록하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또한 장서진 선수(75kg급)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인상 127kg(3위), 용상 166kg(3위)을 기록하며 합계 292kg으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팀 에이스인 전병현 선수는 110kg급에 출전한 인상에서 157kg을 들어 올리며 5위를 기록했으나, 이어진 용상 경기 도중 예상치 못한 부상이 발생해 선수 보호를 위해 기권을 결정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전북현대모터스 N팀 15일 K3리그 홈 개막전 '격돌'

완주군을 홈으로 사용하는 전북현대모터스 N팀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완주공설운동장에서 대전코레일FC를 상대로 2026시즌 K3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는 전북현대 N팀이 세미프로 무대인 K3리그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첫 시험대로, 지역 축구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은다.

전북현대 N팀은 지난 2024년 K4리그 우승을 거머쥐며 K3리그로 승격된 뒤, 지난해 안정적으로 리그 잔류를 확정하며 경쟁력을 증명했다.

올해는 권순형 신임 감독 체제 아래 K리그의 주목받는 유망주인 수비수 이상명과 최진웅을 영입하며 전력을 대폭 보강했다. 총 14개 팀이 담담 26경기를 치르는 치열한 리그 일정 속에서 전북현대 N팀은 한층 진화한 경기력으로 상위권 도약을 노린다.

이날 개막전에는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해 홈팀의 승리를 기원하고 축구 관계자 및 군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 제공...참여 업소 접수

순창군은 안전한 외식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순창군에서 영업 중인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중 5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에 컨설팅을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0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순창군 누리집(sunch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을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는 위생수준 평가 항목 사전 진단, 전문가 1:1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게 되며 컨설팅을 받은 업소는 올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생등급제 지정받아야 한다.

또한,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증 및 현관 교부 △위생등급 지정기간 동안 위생점검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20%) △조량제복 등 위생용품 지원 혜택이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500명 혜택

20만원 상향·지원 연령 확대 영화·도서 분야 추가 포함

완주군이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

군은 올해 지원 대상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9~20세(200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생)로 넓혔다.

지원 금액 역시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청년층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반영해 공연·전시뿐만 아니라 영화 분야를 새롭게 포함했으며,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로 포함될 예

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폭넓은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온라인 예매처도 기존 2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청년들이 보다 쉽게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군은 청년 5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1차 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농업단체 공동성명 "통합시 농촌 자치권 약화"

안호영 의원 통합 찬성 비판

완주지역 농업 관련 12개 단체가 10일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된 농촌 자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 나선 12개 단체는 완주군 농업인회의소(회장 임귀현), 한농연 완주군연합회(회장 장상순), 완주군농민회(회장 이민철),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지부장 정봉락), 완주한우협동조합(이사장 박일진), 완주군 카톨릭농민회(회장 장중혁), 4H본부 완주군지회(회장 이정숙), 완주군 생활개선회(회장 한숙화), 완주군 진 환경연합회(회장 장광익), 완주군 임업후계자연합회(회장 최중배), 완주

군 품목농업인연구회(회장 이문성), 완주군 조경수협동조합(회장 강상희) 등이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통합 이후 농업 예산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농촌 행정의 독립성과 의사결정 권한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도시 중심 정책 속에서 완주 농업의 위상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이 완주·전주 행정통합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군민 다수의 뜻을 거스른 통합 찬성 선언은 군민이 부여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에촌 전통한옥체험 새 단장 숙박·관광 연계 서비스 강화

남원시는 남원에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이 약 2개월간의 단장을 마치고 지난 3월 1일 공식 재개관했다고 밝혔다.

남원에촌은 기존 민간위탁 계약 종료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으나, 신규 민간위탁 계약 체결과 함께 시설 보수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며 본격 방문객 맞이에 나섰다.

남원에촌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최기영 대목장을 비롯해 이근복 번와장, 유종토수 등 국내 최고 한옥 명장들이 참여해 순수 고건축 방식으로 재현한 정통 한옥 공간이다.

재개관과 함께 숙박과 관광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강화했다. 투숙객에게 제공되는 '마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광한루원 등 남원의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민간위탁 3기 운영을 맡은 ㈜이랜드파크는 데이터 중심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도입한다. 매출 및 기동률, 외국인 투숙 실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과, 고객만족도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정량화해 관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단기 합인 위주의 홍보를 지양하고 '남원에촌' 브랜드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연간 마케팅을 추진해 수도권 거주자와 인바운드(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춘향제 '풍ROCK을 울려라' 참가 밴드 모집

영상심사 거쳐 18팀 선발

남원시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 축제인 '제96회 춘향제'를 맞아, 전국의 실력과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밴드 경연대회 '풍ROCK을 울려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축제 기간 중 5월 1일과 2일 양일간 남원 사랑의 광장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참가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밴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이달 10일부터 4월 3일까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연주 동영상 파일과 함께 이메일(nwband@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먼저 온라인 영상 심사를 통해 예선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본선 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후 5월 1일 본선 경연과 2일 결선 경연을 거쳐 최종 수상 3팀을 가리게 되며, 선정된 팀들에게는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 취임

임실 출생 전주교경희대 나와 에너지·환경분야 전문 경영인

임실 출신인 손주석(孫周錫, 1960년생)(사진) 한국석유공사 신임 사장이 지난 5일, 울산 혁신도시에 위치한 석유공사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손주석 사장은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공공기관과 에너지·환경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에너지와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또한,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행정지원실장을 맡아 정부경험을 쌓았으며, 민주당 부천시 소사구 지역위원장을 지내는 등 정무적 역량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손주석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동 정세 등 국제 에너지 환경이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임실 출신인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신임 사장이 지난 5일, 울산 혁신도시에 위치한 석유공사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사진-임실군>

를 책임지는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에너지 안보라는 공사의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 건전성 회복과 석유개발 사업의 질적 고도화, 국가안보 자산인 석유비축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등을 통해 공사의 내실있는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경영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경영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안전경영 강화,

인공지능(AI)기반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한편, 임실 출신 인사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공기업 수장에 취임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임실이 낳은 인재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북은행 무주지점, 무주군에 성금 1,183만원 전달

전북은행 무주지점 임직원들과 가족, 지인 등 119명은 지난 10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183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무주군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전북은행 최종구 부행장과 국중만 지점장이 참석해 ‘고향사랑, 무주사랑’의 뜻을 전했다. 국 지점장은 “전북 대표 은행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크다”라며 “무주지점 임직원들의 정성이 무주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북은행 무주지점은 지난 2023년부터 4년 연속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7,343만 원 기탁)하며 ‘고향사랑 무주사랑’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매년 여름에는 ‘시원 키트’와, 겨울에는 ‘방한 키트’를 전달하고 청소년을 위한 ‘보건 위생용품’과 이웃사랑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산서면, 민원실 비상대응 합동 모의훈련 실시

장수군 산서면은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서파출소와 함께 ‘민원실 비상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민원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폭언 발생 시 민원인 진정 유도 △폭언 및 폭행 상황 발생 시 녹음 절차 이행 △안신벨 작동을 통한 경찰 신속 호출 △피해 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 보호 조치 △가해 민원인 제압 후 경찰 인계 등 단계별 대응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체계적 관리... 우수등급 확보 총력

진안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체계적 운영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전 부서 협업체계를 강화하며 우수등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주요 전략과 우수등급 확보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인구활력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투자 방향을 공유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10년간 지원하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등 배분된다.

진안군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356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주거·관광·교육·농업 등 다양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평가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강화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부서 협업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분기별 사업 추진 점검과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정책 분석을 통해 투자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 평화요양원, 전국 장기요양기관 중 ‘으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우수기관’ A등급 선정

무주군 평화요양원(군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2025년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3년 단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평화요양원은 이번 평가에서 △기관 운영, △수급자 존중, △서비스 제공, △서비스 결과 등 전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어르신 맞춤형 프로

그램 운영과 서비스 계획, 제공 분야에서 호평을 얻었으며 시설 환경과 안전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황진석 무주군 평화요양원 원장은 “그동안 어르신들과 그 가족을 위한 노력의 좋은 결실로 맺혀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복이 넘치는 요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12월 개원(2011년 증축)한 무주군 평화요양원은 100명상

규모로, 제1·2관 총 1,502㎡ 면적에 생활실과 치료실, 자원봉사자실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무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치매와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나 고령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가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옥정호 벚꽃축제 4월 11일 개막

김용빈·홍성윤 등 개막공연

전국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에 봄맞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달 11일에 옥정호 최고의 축제인 벚꽃축제가 개막한다. 군은 오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2026 옥정호 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봄꽃 만개시기에 맞춰 ‘전만 관광 임실 시대’를 여는 대표 봄 축제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전국에 알릴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축제는 개막식 축하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첫날인 11일에는 방문객들의 흥을 돋울 화려한 개막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최근 트롯계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김용빈, 남승민, 채윤, 홍성윤 등 실력과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개막식은 오후 7시에 시작되며, 개막식 축하공연은 오후 8시에 시작된다.

올해 축제는 최대한 벚꽃이 만개한 시점에 맞춰 개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벚꽃 경관을 선사함과 동시에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의 봄꽃 향연까지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와 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썼다”며 “4월 11일과 12일 열리는 옥정호 벚꽃축제에 오셔서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과수화상병 예방 선제 대응 강화

재배농가 대상 방제약제 지원 등

장수군은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잎과 꽃, 가지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기에 방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장수군은 올해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개화 전·후 3회 방제 체계에 맞춰 적용 약제를 선정하고 농가의 방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농약 티켓 방식으로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있다.

군은 과수 농가가 지정된 약제를 활용해 적기에 방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군은 과수 병해충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과수 병해충 예방포 20개소를 선정해 주 2회 정기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해충 발생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농가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과 주산지의 특성을 고려해

사과 작목반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장수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의 자가 예방 능력을 높이고 예방 방제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현장 중심의 병해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과수화상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도 선제적 대응과 적기 방제 등 철저한 과원 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고독사 예방 ‘행복우편’ 운영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 3년 연속 선정

장수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인 ‘장수군 행복우편 배달서비스’를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은 장수군의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는 현실에 대응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장수군 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8%에 달하는 8,598 명에 이른다.

장수군은 이러한 사회 구조 변화에 발맞추어 1인 가구 등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200여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며 지역 우체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밀착형 안부 확인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생필품 등을 전달하면서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살피고 배송과정에서 확인한 특이사항을 회신하여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즉시 연계할 방침이다.

장수군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수우체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돌보기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돌발 해충 월동난 예찰 실시

선제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무주군은 오는 25일까지 ‘2026년 돌발 해충 월동난(알) 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찰은 농경지와 주변 산림에서 발생하는 돌발 해충의 확산을 막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무주읍을 비롯한 지역 내 6개 읍면 농경지와 인접 산림에서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매

미나방’ 등 3종의 돌발 해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사과·배·감·복숭아 등 유실수와 블루베리, 밤나무 등을 대상으로 하며, ‘꽃매미’는 포도와 머루, 매실나무 및 지주 시설 등을 중심으로 미리 살핀다. ‘매미나방’의 경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뿐 아니라 가로등 주변 나무와 시설물까지도 조사 범위에 포함해 조사한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운영 추진

임실군은 농기계 운반 장비가 없는 농업인의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 임대농기계 운반과 회수를 해결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 운반대행’을 지난 9일부터 실시한다고 전했다.

운반대행 기종은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 중 관리기 등 7종으로 1톤 이상 트럭에 운반 가능한 엔진부착형 소형 지주식 농기계에 해당한다.

운반대행료는 관내 전지역 운반·회수 왕복 자부담 5만원이며, 신청 절차

는 예약제로 최소 하루 전 권역별 임대사업소(중부, 남부, 서부, 북부)에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하며 당일 신청은 불가하다.

농업기술센터 천소영 소장은 “농번기에 따라 영농현장에 임대농기계 운반지원으로 적기에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농업기회화 추진 및 일손 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친절 교육 실시

각종 행사 대비 음식점 위생수준 서비스 질 향상 위한 사전 준비

장수군은 최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대상으로 위생·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에서 개최되는 ‘장수 트레일레이스’와 ‘장수승마대회’ 등 각종 행사로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장수군지부 주관으로 열렸고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100여 명이 참석해 위생 관리와 친절 서비스

향상 방안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서는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제도를 안내하고 음식 덜어먹기·남은 음식 재사용하지 않기·나트륨 절감 건강식단 실천하기 등 음식 문화 개선 실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주 준수사항과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고객 응대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을 병행해 외식업 전반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반복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영업주의 책임의식을 높였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조완열 씨 저소득가정에 성금 200만원 기탁

임실군은 지난 6일, 지사면에 거주하는 조완열씨가 지역 저소득가정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한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저소득 가정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조완열씨는 그동안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기부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왔으며, 단순한 일회성 기부가 아닌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조완열씨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조완열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 함열읍 굽네치킨, 개업과 동시에 '착한가게' 동참

익산시 함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미례·이기열)는 10일 '굽네치킨 함열점 (대표 문보경)'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굽네치킨 함열점은 매장 개업과 함께 착한가게에 가입해 정기 기부를 통한 나눔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 일정 금액을 기부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가게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사용된다.

문보경 대표는 "매장을 개업하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어 착한가게에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매장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미례 함열읍장은 "개업 준비로 바쁜 상황에서도 나눔을 먼저 실천해 주신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나눔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아동여성안전문화지역연대 폭력예방 캠페인

봉동생강골시장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 경각심 높여

완주군이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나섰다.

완주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최근 봉동생강골시장 일원에서 여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며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에는 완주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완주군가족센터,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지역

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모았다.

참여자들은 '아동·여성 모두가 안전한 완주 함께 만들어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장 일대를 순회하며 폭력 예방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이번 활동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아동학대 등 각종 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 속 예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은 "폭력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 경천면지사협,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완주군 경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9일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활동은 중증장애인 자매가 거주하던 집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해당 가구는 어머니 사망 이후 자매가 시골로 임시하면서 가재도구와 집기류 등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으며, 새로 입주할 대상자가 스스로 정리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경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해당 가구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으고 현장을 찾았다.

최봉구 공동위원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작지만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북연합회, 군산시에 백미 기탁

제12대 회장단 취임 기념 백미 10kg 36포 전달

군산시 옥도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전재인)는 10일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정영문)에서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백미 10킬로 36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백미는 한국수산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제12대 회장단 취임을 기념해 마련된 것

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연합회 정영문 회장은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증진은 물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전재인 옥도면장은 "연합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백미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운봉아이키움새싹협회 이사장, 기부금 기탁

운봉아이키움새싹협회 신동열 이사장이 지난 10일 출생축하금 지원을 위한 운봉아이키움새싹협회에 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금은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사회 참여 확산을 위해 이사장의 숭선 수범으로 이뤄진 것으로, 운봉 지역 출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에 사용되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열 이사장은 "저출생 위기 속에서 지역이 함께 아이를 축하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출산 가정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운봉아이키움새싹협회는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티제이주식회사, 부안군에 장학금 기탁

부안군 동진면에 소재한 티제이주식회사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200만원을 부안군 근농민 재육성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티제이주식회사는 양곡 전문 업체로 도정업을 비롯해 정부양곡 보관 및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품질관리와 위생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안전한 양곡 유통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농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매·보관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창훈 대표는 "지역의 신뢰 속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며 훗날 다시 지역을 빛내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 용지면 사회단체협의회,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10일, 주요 20개 사회단체 회원들과 주민,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자들은 마을 생활권과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겨우내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불법 적치물을 수거하며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특히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점 정비해 주민 불편 해소에 힘썼으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인사] 농촌진흥청 인사발령(2026. 3. 11.자)

◆ 과장급(직위승진) △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독성위해평가과장이 경원

◆ 과장급(전보) △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 유오중

화재예방 수칙 1. 개진 불씨 확인 철저 2. 담배꽂초 무단투기 금지 3. 음식물 조리 중 자리 지키기 4. 초 사용시 주변 가연물 제거

〈一事一言〉



출렁이는 증시... '정부 시장 안정책'이 최고의 부양책(1)

홍중학
전 중소벤처부 장관

얼마 전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 '위험한 상황'에 가깝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조금 상승하다가 예기치 않은 변동성으로 인해 한국의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이성적 과열이 아니라, 차분한 경계심이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올랐느냐'이다. 가격이 펀더멘털과 동행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치솟으면, 시장은 필연적으로 비이성적 과열 영역에 근접한다.

비록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수혜를 받는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몇 달 사이 지수 레벨이 과거 수년 치 상승분을 한 번에 압축한 것은, 기업 이익의 구조적 도약보다는 유동성과 심리의 산물에 가깝다.

상승 과정에서 변동성(일일 등락 폭)이 함께 커졌다는 사실은, '편안한 강세장'이 아니라 '몰려 코스터형 강세장'에 가깝다는 신호다. 단기 급락 후 곧바로 급반등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장기 투자자의 매집이 아니라 단기 레버리지·파생상품·모멘텀 자금이 주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격이 오를수록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오를수록 추가 하락 폭과 속도가 커진다. "이 정도면 비싸다"는 말을 공공연히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자재가, 이미 과열의 말기 징후라

고 볼 수 있다. 해외 금융시장에서는 금동 국면마다 콘트라리언(Contrarian), 즉 역발상 투자자와 비관론자의 경고가 활발히 보도된다. 최근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장이 좋은 미국에서도 이런저런 데이터와 함께 현금 비중을 높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많이 보도하고 있다. 이들은 인기가 없지만, 가장 비쌀 때 경고장을 보내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 시장은 이 안전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국내 언론·방송·유튜브·포털 기사 대부분은 "기회", "초대형 호재",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라는 톤으로 채워진다. "위험하다", "거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대비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는 거의 소개되지 않거나, "잔소리" 정도로 소화된다. 정책 당국, 여의도, 미디어, 개인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모두 '상승'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락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소수자가 되기 쉽다.

건강한 시장에는 최소한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해야 한다. 낙관적 시각으로 성장 기회와 구조적 변화를 읽는 관점이 널리 퍼지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반면 밸류에이션, 유동성, 레버리지, 심리 과열을 점검하는 관점을 제기하는 비판·경계 시각도 함께 보도될 때 시장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지금 한국 시장은 낙관적 시각에 압도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부정적·경계적 주장 자체가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의 '경보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한국 시장의 가장 위험한 신호다.

흥미로운 점은, 국내에서는 낙관론이 지배적인 반면 해외에서는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마르코 폴라노비치는 JP모건의 수석전략가로 강세장에서 비관론을 펼쳐다 쫓겨나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이미 2월부터 한국 시장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해 왔다. 코스피가 1000에서 2000까지 오르는 데 40년이 걸렸는데, 불과 몇 달 만에 4000포인트 올랐다는 것은 평균 수익률의 100년 이상에 해당한다며, 폭등 후 붕괴하는 양상(blow-off top)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사실 국내에서도 이미 60년대 증권 파동부터 외환위기 이후 바코리아 열풍, 2000년의 닷컴 버블 등 단기간 급등 후 폭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던 경험에 있다. 폴라노비치의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소개만 될 뿐 남의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다.

폴라노비치는 만약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AI 주도권을 위해 퍼붓고 있는 자본지출(CapEx)이 줄어들면 한국물은 폭락할 것이며, 사이클이 꺾이면 한국 시장 전체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예기치 않은 변동성으로 급등락을 반복하자, 이번에는 비앙코 리서치의 집 비앙코 대표가 중동전쟁으로 유가 급등시 한국 시장이 가장 취약하다고 언급하

며,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 시에 크게 오를 수 있지만 조정 시에도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급락하는 시장이라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급기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위기를 예상하고 역투자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후에 영화 빅 숏(Big Short)의 모델이 되었던 마이클 버리까지 나서 한국 시장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하는 것은 장기 투자자를 해야 할 기관투자자들이 단기 모멘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모멘텀 투자는 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을 기반으로 추가 매수하여 상승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투기적 투자 방법이다. 기관 투자자가 이런 양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이며, 마이클 버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언급하며 한국 시장에서 종말의 파국(apocalypse)을 경고할 정도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을 발췌합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을 K-푸드 글로벌 수출 전진기지로 키우자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미래를 시험하고 세계로 확장하는 전진기지로 도약할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최근 타운홀 미팅을 통해 'K-푸드 세계화의 전진기지, 농생명수도 전북' 전략을 공식화하며 국가 식품클러스터 고도화, 햄프산업 중심 그린바이오 육성, AI 스마트농업 확산, 미식·관광 산업화라는 4대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전북을 K-푸드 글로벌 수출 허브로 육성하는 데 있다. 그 중심에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을 통해 푸드테크 중심의 미래 식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업부터 연구개발, 제품화, 수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청년 창업사관학교와 공유공장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전북에서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햄프산업 육성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햄프는 식품과 화장품, 의약 소재 등으로 활용되는 차세대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세계 시장 규모만도 100조가 넘는 성장 산업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을 '글로벌 메가특구 1호' 햄프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배에서 추출·가공,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규제 특례와 국가 책임형 관리모델을 적용하는 '샌드박스' 도입과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AI 기반 스마트농업과 재생에너지 융

합 전략 역시 미래 농업의 방향을 보여준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청년 스마트농업인을 양성하고 새만금과 연계한 AI 기반 농업 실증 모델을 확산하는 계획은 전북 농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도다.

특히 농업 RE100과 전북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통해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하는 국가 표준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농업인의 소득 구조를 다각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북이 가진 미식 자산을 산업화하는 전략도 빼놓을 수 없다. 전주비빔밥, 임실치즈, 순창 장류 등 전북의 대표 식품 자산을 이미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다. 이를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하고 미식 관광과 결합한다면 농업·식품·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상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예타조사 통과와 햄프산업 특별법 제정, 스마트농업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은 반드시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전북은 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청년 창업에서 글로벌 강소기업까지 이어지는 농생명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K-푸드 수출 거점을 완성한다면 전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낡은 산업으로 인식돼 오던 농업이 미래산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무대가 바로 전북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열전



남궁찬묘석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농묘조각, 석인
-지정일 - 1999년 11월 19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익산시 성당면
 목사동길 48 (갈산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안주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인주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정수지국 010-8628-6049
정읍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순창지국 010-5312-7293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꽃 /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시인 약력 : 1922년 경남 통영 출생. 경성제일고보를 졸업했다. 1946년에 시 '애가'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61년 경북대와 영남대 국어

국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시인과 평론가로서 활동했다. 1948년 첫 시집인 '구름과 장미' 출간을 시작으로 '산악(山嶽)', '꽃을 위한

서시'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등을 발표했다. 1958년에 한국시인협회상, 1959년에 아시아 자유문학상을 수상했다.



자연생태계 보전, 우리의 작은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천연기념물 수달이 함께 사는
도심 속 생명의 터전, 전주천입니다.”

전입부터 정착까지 든든하게 정읍형 인구정책 풀패키지 가동

정읍시는 올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촘촘해진 인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정읍시 인구 정책의 핵심은 '생활 밀착형 지원'과 '기존 사업의 실효성 강화'다. 전입을 시작으로 결혼, 출산, 양육에 이르는 폭넓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인구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결혼과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청년층에게 '선택'받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2026년 새롭게 선보이는 정책들은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비·주거비·양육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매년 인구정책 통합안내서를 제작해 시민과 정읍시로 전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보다 편리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서는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e-book)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편집자 주)



전입-정착-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지원 맞춤형 인구정책 본격화 전입지원금 확대 ·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대학생들에게는 기존에 학기당 25만원씩 연간 50만원 지원하던 주거비용을 학기당 50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해 주거비 걱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신혼부부·청년층 정착의 기본 요소인 주거 안정을 정책의 중심에

주거 안정은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관련 지원자격을 문턱도 낮췄다. 신혼부부·청년 보금자리 이자 지원 사업은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2%를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시는 2026년부터 신혼부부의 연 소득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청년층의 소득 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정읍시에서 추진 중인 주택자금 지원사업은 매입, 신축, 전세 등 취득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용면적 제한이 없는 등 지원범위가 포괄적이며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해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였을 경우 월등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그 동안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급해오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 "지역에서 꿈을 펼치도록"... 결혼 및 정착 지원 강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웨딩엔 정읍' 사업의 지원금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정읍에서 예식을 치르는 예비부부의 대관료와 식대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 "지역에서 꿈을 펼치도록"... 결혼 및 정착 지원 강화
아울러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연구소기업, 농어업 등 근로 청년 140명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1년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금(청년수당)'을 지급하고, 귀농을 하는 청년 및 결혼세대에게는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및 다자녀 가구·출산 지원 사업...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출산과 양육의 가치를 드높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본인 출산 시 90만원의 출산급여를,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의 출산휴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도 신설해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6~11인승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가족의 행복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관내 사진관과 협업해 1년 이내 출산한 가정이 가족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출산가정 행복사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100인 미만 사업장에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출생아 신고 축하 기념품의 수요를 반영해 기존에 지원하던 이불세트 대신 정읍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한다.

이학수 시장은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정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읍,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정읍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정읍으로 오세요"... 전입 초기 정착 지원금 대폭 확대

먼저 시는 타 지자체에서 정읍으로 터전을 옮기는 시민들을 위해 전입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 15만원이었던 지원금을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해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20만원, 1년이 경과하면 3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변경된 제도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된다.

전입 청년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눈에 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전입한 청년 세대주에게는 이삿짐 운반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주 청소 등에 소요되는 이사 제반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역 대학교에 재학하기 위해 전입하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임실군의회